

보도시점 : 2025. 12. 29.(월) 06:00 이후(12. 29.(월) 석간) / 배포 : 2025. 12. 26.(금)

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(안)('25~'29) 마련 경관정책의 실행력과 체감도 끌어올린다

- 5년마다 수립하는 경관정책의 최상위계획, 관계기관 의견조회 개시(12.29일~, 2주간)
- “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·도시·건축 경관”을 비전으로, 중점추진과제 등 제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「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(안)('25~'29)」이 마련되어 12월 29일부터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한다.
 - 경관정책기본계획은 「경관법」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·지원·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관정책의 최상위 계획이다.
- 그간 제1차('15~'19), 제2차('20~'24)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로는 '13년에 도입된 경관심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는 등 경관관리체계가 자리 잡는데 기여했다는 점 등이 있다.
 - 다만,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반 국민에게는 경관 관련 제도나 정책, 사업에 대한 체감도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,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.
- 이에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중앙·지방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경관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관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, 경관 산업의 생태계 형성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.

<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>

제1차 '15~'19	경관가치정립 및 기반구축	제2차 '20~'24	경관관리 체계강화 및 문화창출	제3차 '25~'29	경관정책 체감도 제고 및 산업생태계 조성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

- ▶ 제1,2차 계획이 구축한 경관정책기반을 바탕으로 **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**
- ▶ 중앙·지방 정부 차원의 **정책 추진 실행력 확보** 및 적극적인 경관사업 전개
- ▶ 규제·관리 중심의 경관정책에서 **협력에 기반한 지원·유도 중심으로 전환**
- ▶ 경관정책의 도입·정착 시기를 넘어, **경관산업의 생태계 형성 기반 마련**

□ 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(안)('25~'29)의 비전은 “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·도시·건축 경관”으로, 이에 따른 목표는 “1. 품격 있는 국토 경관 형성, 2. 미래 도시건축 경관자산 창조, 3. 민관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”으로 제시되었다. [참고]

○ 또한, 4개의 추진전략과 8개의 정책과제, 16개의 추진과제, 추진과제 중 6개가 중점추진과제로 마련되었다.

□ 대표적인 중점과제로는 경관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경관사업으로 도시·지역 디자인 혁신 사업²⁻¹ 등이, 경관정책을 규제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중점 경관관리 구역 지원강화³⁻² 등이 있다.

○ 도시·지역 디자인 혁신사업²⁻¹는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지역만의 특색 있는 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.

- 그리스 산토리니*의 사례와 같이, 지역의 건축자산 또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의 구역에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* 흰색 회벽, 파란지붕, 건물 높이 7미터 이하, 화산재 등 자연소재 권장, 정기 도색 등의 디자인가이드라인 운영 → 1.5만명 섬에 연 340만명 방문

○ 중점 경관관리구역 지원강화³⁻²는 적극적으로 주변 경관을 형성해야 하는 핵심 경관자원이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이다.

- 현행법 상의 ‘중점경관관리구역’을 ‘중점경관진흥구역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구역 지정 시 우수한 경관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도시·건축 규제 특례, 예산 지원 등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법제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.

□ 제3차 계획(안)은 12월 29일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시작하여, 이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“제3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은 단순히 바라보는 ‘경관’을 넘어, 도시와 건축, 자연경관이 그 자체로서 자본과 사람을 끌어들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‘사회적 자산’이라는 인식 전환을 기초로 수립될 예정”이라며,

○ “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그리스 산토리니 섬, 전주 한옥마을*과 같은 국내외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, 문화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”이라고 덧붙였다.

* (구겐하임 미술관) 독창적인 건축디자인을 통해 쇠퇴한 철강도시를 문화도시로 탈바꿈 (그리스 산토리니) 자연경관과 조화된 일관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섬 전체를 관광자원화 (전주 한옥마을) 지속적인 한옥 개보수 지원, 연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도시 활성화

담당 부서	건축정책관 건축문화경관과	책임자	과 장	최아름 (044-201-3775)
		담당자	서기관 주무관	김수현 (044-201-4095) 이현수 (044-201-3781)

비 전

역사와 미래를 담은 국토·도시·건축 경관

목 표 1	목 표 2	목 표 3
품격있는 국토경관 형성	미래 도시건축 자산 창조	민관 협력 산업 생태계 구축
추진 전략	정 책 과 제	추진 과제
① 관리에서 창조로	1. 국토 랜드마크 경관 형성	1-1. 국토디자인 선도프로젝트 추진★ 1-2. 국토경관 루트 지정·홍보
	2. 도시·지역 특화경관 형성	2-1. 도시·지역 디자인 혁신사업 추진★ 2-2. 도시·지역 디자인 특화기준 마련
② 규제에서 지원으로	3. 경관규제 합리화 및 지원 확대	3-1. 경관심의 합리화* 3-2. 중점 경관관리 구역 지원강화*
	4. 경관계획 실행력 강화 및 협력 확대	4-1. 경관사업 지원 확대 4-2. 경관계획 체계화
③ 공공주도에서 민간참여로	5. 도시·지역경관 참여기반 구축	5-1. 맞춤형 경관 교육 시행* 5-2. 경관 모니터링 체계 구축
	6. 경관사업 주민참여 활성화	6-1. 주민참여 경관자원 발굴·활용 6-2. 참여형 도시·지역 디자인 개선
④ 개별사업에서 생태계 조성으로	7. 경관산업 생태계 조성	7-1. 경관산업 기초조사 실시* 7-2. 경관산업 인재육성 및 홍보강화
	8. 경관 데이터 기반 구축	8-1. 국토경관 데이터 수집 8-2. 경관관리 정보체계 구축

★ 중점추진과제